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 버려 중도를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월 26일)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법정 스님 원적 10년 '무소유' 향훈 기린다

맑고향기롭게, 10주기 좌담회 · 사진전 등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상을 떠나면서도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가 열린다.

법정 스님의 입적 10주기를 맞아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와 서울 길상사가 10주기 추모법회를 비롯한 선양행사를 다채롭게 연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10주기 추모법회를 음력 기일인 2월 19일 길상사 사시예불 후인 오전 11시에 봉행한다.

법회는 법정 스님이 마지막까지 남긴 무소유 가르침에 따라 평소와 다름없이 간소하게 봉행될 예정이다.

추모법회는 명종,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종사영반(영단삼배, 헌향, 헌다, 헌공, 헌화), 길상사 8대 주지 및 맑고향기롭게 4대 이사장 덕일 스님 인사말, 법정 스님 영상 법문 '스스로 행복하라'(2006년 4월 16일 봄정기법문), 추모 법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무소유, 음악 · 좌담으로 기려

이와 함께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길상사 길상선원서 법정 스님 추모 의미로 사진전이 열린다. 사진전에서는 생전 스님의 모습을 길상사에서 가까이 사진으로 기록했던 일여 이종승 작가와 불일암과 길상사에서 스님의 모습을 기록한 우경 유동영 작가 외 사진작가들이 맑고향기롭게에 기증한 사진이 전시된다.

또 3월 8일 오후 1시 30분에는 길상사 설법전에서는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무소유를 읽다'도 열린다. '무소유를 읽다' 음악회는 스님이 남긴 무소유 정신에 대해 음악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펼쳐진다.

여기에는 법정 스님과 인연을 나눈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다. 문학인으로는 '슬픔이 기쁨에게' '풍경소리'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등의 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호승 시인을 비롯해 현대문학상, 천상병시상을 수상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선우 작가가 참여한다. 그리고 법정 스님 생전 인연이 깊었던 이계진 前 국회의원(맑고향기롭게 前이사)와 변택주 작가(맑고향기롭게 前이사)가 참여하며, 정인성 시낭송전문가(수원시낭송가협회장)도 함께한다. 음악가로는 음유시인 김현성과 맑고향기롭게 노랫말 홍보대사 박창근, 김은진 씨가 참여한다.

음악회서는 무소유, 오해, 나그네 길에서, 미리 쓰는 유서, 본래무일물, 나의 애송시 등을 낭독하고, 출연자별로 법정 스님의 수행자로서 모습과 더불어 문학인으로서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또 2월 23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네 번째 일요일에는 길상사 설법전에서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 좌담회 '법정, 나를 물들이다'도 진행된다. 좌담회는 초청 명사가 20분 발제를 한 뒤, 명사와 진행자가 1:1 좌담 및 청중 좌담을 진행한다.

다양한 문화행사도 연중 개최

이와 함께 법정 스님의 유지에 따라 절판된 저서들을 전자책으로도 만나는 기회가 마련된다. 법정 스님은 입적 당시 본인의 저서 절판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법정 스님의 모든 저작권을 상속받아 관리하는 맑고향기롭게 측은 저서 계약기간 이후에는 출판 및 저서 보급 금지를 출판사들과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대중이 법정 스님의 글을 접하길 바라는 신청을 맑고향기롭게에 함에 따라 맑고향기롭게는 회원들이 홈페이지에서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책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4월부터 스님의 저서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2월 19일 추모법회 시작으로
스님 추모행사들 잇달아 열려
음악 · 토크 등 아우른 문화행사
법정 스님 추억할 사진공모도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사진뿐만 아니라 스님이 수행해 온 다양한 수행처의 모습을 담은 사진 공모전도 열린다. 스님의 출가고향 마을인 해남 우수영을 비롯해 통영 미래사, 하동 쌍계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서울 봉은사, 순천 송광사, 불일암, 서울 길상사에서의 스님이 수행하는 모습, 대중과 함께 지혜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모습, 또는 이들 산사의 풍경 및 사찰 전통 건축양식 등을 소재로 한 사진을 응모하면 된다.

또 부처님오신날 문화행사로 4월 24일부터 '법정 스님의 향기로운 글&금강경 모음전'이 진행되며, 6월 6일에는 제4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티벳 난민 어린이를 위한 법정 스님의 '슬기로운 어린이 동화책' 티벳어 번역보급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맑고향기롭게는 "입적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저서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스님의 말씀이 혼탁한 세상에 밝은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10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 예방에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중국 피해지역 구호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노덕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불교계 '자비 손길' 잇달아

조계종, 中 신종 코로나 피해 구호기금 1억원 전달

종단협 · 천태종 중국에 마스크 지원
아름다운동행 취약계층 대상 모연도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중국의 피해 주민들을 위해 불교계가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 예방에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중국 피해지역 구호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 13일 현재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5만9822명으로 누적 사망 1367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의 구호기금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감염예방 물품과 구호물품 구입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달식 직후 싱하이밍 대사는 "조계종의 지지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국에서는 엄격한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는 1600여 년 전 중국을 통해 전래됐다. 이후 한국과 중국불교계는 꾸준하게 교류하며 상호 발전해왔다"면서 "작은 성의지만 병마에 고통 받고 있는 중국인들이 이를 극복하는 데 잘 사용됐으면 한다. 종단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화답했다.

원행 스님과 싱하이밍 대사는 양국 불교 교류에 대한 환담도 나눴다. 싱하이밍 대사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중일불교도대회 개최지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앞선 한국 대회는 서울에서 진행돼 올해 대회는 부산과 통도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3월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개최지가 확정될 것"이라며 "대회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 일정 허락되면 대회에 참석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 사회부장 덕조 스님과 최재천 前 국회의원,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이 함께 했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은 사회취약계층의 코로나19 예방과 수습 지원을 위해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이번 모금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모금은 아름다운동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전화 문의로 동참할 수 있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1월 30일 중국 후베이불교협회에 마스크 4,000장을 보낸 데 이어 2월 10일까지 후베이불교협회에 추가로 4,000개를 보냈다. 또한 국청사(저장성) · 옥천사(후베이성) · 광효사(광둥성) · 보타사(광둥성) 등에 총 1만6000여 개의 마스크를 지원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도 30개 회원 종단의 뜻을 모아 마스크 1만장(15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지난 1월 31일 후베이불교협회에 보냈다.

이와 함께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진호국가불사를 봉행한다. 진각종 총인 경정 정사는 2월 월초불공을 앞두고 전국의 심인당에 '코로나19' 식재서원 강도불사의 교시를 내렸다. 총인 경정 정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내외 큰 우려가 있다"면서 "전염병의 소멸을 위해 2월 월초불공에는 특별강도를, 이후 식재될 때가지 각 심인당에서 서원을 이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INDEX 조계종 가사원 현장을 가다 5면 |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퇴임 인터뷰 7면

종단안정과 승가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담화문

국내외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종단의 일부 교구본사에서 발생한 갈등과 혼란, 그리고 사찰 경내에서 벌어진 도박의혹 사건이 공중파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사회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았던 과거 승가의 비불교적, 반사회적 행위의 아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마땅히 마음조차 내지 말아야 할 도박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더욱이 수행과 전법의 공동체 공간이자, 국민들에겐 휴식처이며, 전통문화의 보고임을 자부해 온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파승가적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탐욕으로 밤을 새워가며 도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출가수행자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 드립니다.
출가수행자가 한시라도 놓지 말아야 할 제일의 화두는 화합일진대 조계종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교구본사에서 파승가적 ·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단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종단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할 지라도 현재 시점에서 종단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며, 종단의 진정성있는 조치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신속히 조사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것입니다.

승가공동체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승려 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한국불교의 전통인 승가공동체를 통해 유지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종정예하와 원로의원스님들께서 승가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종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격려와 가르침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종단은 종정예하와 원로의원 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종단 안정과 화합 그리고 승가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종단혼란을 조장하고 종단 집행부를 흔들고자 하는 삿된 시도가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러한 반 종단적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헛된 망상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승가의 잘못과 허물을 꾸짖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종단이 정한 규율인 종헌종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허물을 여과 없이 사회에 노출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한국불교에는 아직도 희망과 저력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각인하고 그 믿음을 위해 사부대중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여러분과 사부대중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호도 흔들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4(2020)년 2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